

영화속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 사색 꿈을 즐기는 '호모환타지아'의 본질 규명

—「철학으로 영화보기…」낸 김영민씨



어쩌다 이런
근혹스러움에 빠질 때가
있다. “이 책이
철학책이야,
경제학책이야?”

스스로 물어도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학교 2학년때 부산 보수천변에 있는 영남극장에서 청춘물 ‘여고시절’을 보다가 체육교사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에 붙잡혀 신나게 얻어터지고 명찰까지 뜯기는 수난을 당했’던 한 아이가 자라, 부산대 철학과 강사가 되어 지은 「철학으로 영화보기 영화로 철학하기」(철학과현실사)도 그런 책이다. 도대체 이 책을 영화관련서라고 해야 할지, 철학서로 봐야 할지. 딱히 무식을 벗어나자면 “철학과 영화의 ‘절묘한 조화…” 운운해야겠으나, 이 말도 빛좋은 개살구처럼 들린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근혹스러움에 빠진다는 자체도 바보스러운 것일 터이다. 이제는 영화를 인간의 삶과 별개로 놓고 생각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저자 김영민씨(38)도 이 점을 말하고 있다.

“영화는 인간이고, 영화관의 문은 열려 있다.”

마치 불조심 표어처럼 들리는 이 말은 “영화가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를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는 뜻의 극단적 표현이다. 따라서 영화에서 철학이라는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영화가 주요 철학적 테마로 떠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상상력이 극대화되고 구성력이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곧 복잡한 인간의 삶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곧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민씨가 철학적 논거의 자료로 삼은 영화는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다. 내용도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화 ‘황비홍’이다. 저자는 황비홍을 “진부하고 관습적인 일상의 피폐함에 찌든 현대 도시인들의 잃어버린 날개를 푸석거리게 만들고, 식어버린 혈류를 다시 들끓게 만드는 신”이라고 표현하면서 현대의 도시문명, 날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대의 남성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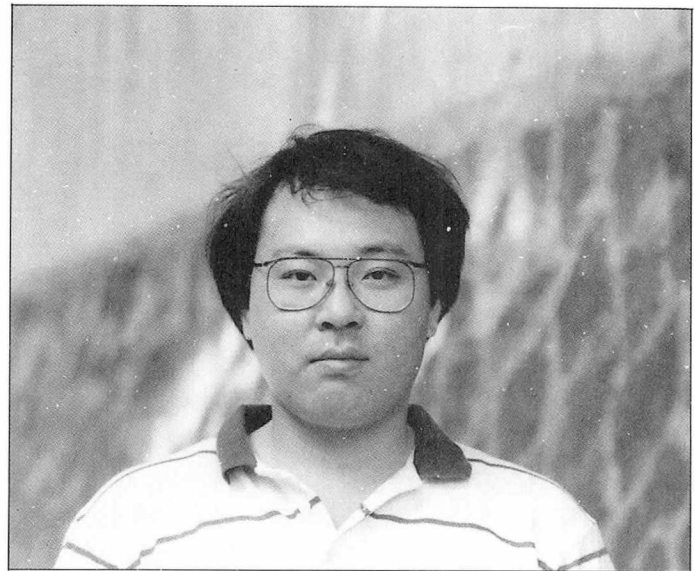
이외에도 영화 ‘미션’ ‘호르는 강물처럼’ ‘하얀전쟁’ ‘서편제’ ‘기적’ 등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철학적 사색을 들려주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칭찬으로 일관된 평가를 받아온 ‘서편제’에 대해 ‘신토속주의’를 대표하는 “반편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국수주의적 발상에 대한 가혹한 질책도 서슴지 않는다.

한국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김영민씨는 인문학적 전문성의 결여에서 찾고 있다. 문제의 역은 당연히 해결의 열쇠가 될텐데, 그것은 한마디로 제한 기술보다 “상상력의 현시”를 뛰어넘어 “인문학적 전문성이 영화속에 충분히 용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책의 말미에 화두처럼 던진 저자의 말은 자신의 현실이면서 모든 인간의 현실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손자는 좀 별난 놈이었다. 그의 취미는 영화이고 변변한 직장도 없는 한량인데 그 이름을 ‘호모 환타지아’라고 했다던가.”

—이성수 기자



존재론 시각 인상적인 대중문화 분석서 가장 일상적인 문화소비행위들 본격조명

—「웃음의 해석학 행복의 정치학」낸 김종엽씨



“식탁 예법, 장례와
죽음, 축제, 학교와
어린이, 질병, 광고,
감옥, 가족생활 등등
오랫동안 개인사의

과정으로만 여겨왔던 주제들이 오늘날 학문의 단골메뉴가 됐다. 일상생활사, 페미니즘 등은 그런 흐름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것은 좁은 학문의 밥상을 넓히기 위한 것도, 지식인의 편집증의 산물도 아니다. 오히려 역사를 형성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국면의 거대한 집괴라는 섬세한 감수성이 놓여 있다. 오늘날 유행하는 현대성에 대한 거대한 담론도 콘돔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불암 시리즈, 베네통 광고, 농담, 전자오락게임, 한희작 만화, 코폴라 감독의 영화 「드라큘라」와 제인 캠피온의 「피아노」, 윌트디즈니의 만화영화, 등 “번다한 대중문화의 세계”를 “사랑, 죽음, 웃음, 슬픔 같은 존재론적인 주제들로 다뤘던” 문화비평가 김종엽씨(32)가 그 글들을 한데 모았다. 「웃음의 해석학, 행복의 정치학」(한나래)이 그것으로, 대중문화로부터 촉발된 일상적 호기심에 추수를 들이밀어 사회학적 상상력으로서 그것의 문화적 맥락과 대중의 무의식을 길어올리고 있다. 기왓장에서 道를 발견하는 직관의 모험을 하면서도, 그 비약을 촘촘한 해석과 튼실한 이론으로 현실의 자장 안으로 묶어두는 지적 모험의 세계를 보여준다. 예를들어 「만화, 장난감, 포스트모던」이란 글은, 왜 25년전 「홍길동」이 상영되던 극장에는 어른들이 없었고 왜 「알라딘」에는 어른관객이 포일까라는 ‘소박한’ 의문에 대한 사회비평적 답변이다. 모든 진지함의 전멸, 사회의 어린화의 한

증후라는 해석이다. “우리는 험한 풍량을 팬시회사제품의 장난감 배를 타고 만화를 읽으며 건너려고 하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 金씨는 만화의 매체적 특질, 역사적 산물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관념의 강화 등의 징검다리를 놓는다.

“사회학이 일상인의 삶에 대한 계몽적 효과를 통해 고통을 감소시키는 학문이라면,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이 고통을 줄이려는 세속적 노력이라면, 언제나 문화의 정치를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고 달콤하게 수용하는 많은 것들이 정치적 테러리즘과 전체주의의 운반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화연구, 문화이론이 정치경제학을 대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문화적 소비행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자는 도서관을 농성장으로 ‘애용’했던 80년대를 통과하면서, 그 변혁운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으로서 ‘행복의 정치학’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깡마른 이해는 실천적으로 취약하고 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이다.

문화연구가 이론적 관음증이 아닌 이론의 기초인 고통에의 동참이라는 설명이다.

그가 들춰본 사적 삶의 커튼 안쪽에는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하다. 책제목의 ‘웃음의 해석학’은 “학문적 해석에서 벗어나야 할 어떤 그늘도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웃음은 “해방과정의 해방성”을 보여주는 한바탕 축제이다. 또다른 해석이 어떤 단선적인 해석에 대한 일종의 ‘비판’으로 읽힐 때, 그의 화두인 ‘행복의 정치학’의 커튼이 들춰지는 셈이다. —김중식 기자



고국 떠난 유랑과 표류의 오십년 세월 중국 태국 등서 겪은 고난의 행적 담아

—「탈출」 펴낸 문충일씨

이 책 그 사람
일제 수탈기였던 1938년, 평북 용천군 동하면에서 태어나 만주, 중국, 미얀마, 태국 등지를 장장 50년간 표류하던 문충일씨가 드디어 고국땅을 밟았다. 얼마전 'PD수첩'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도 문씨 일가를 위한 구명운동을 벌인 바 있어 눈여겨 본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다.

꿈에서도 고국땅을 그렸다는 문충일씨(57). 한 인간의 소망이 실현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를 문씨 자신이 증명해 주고 있다. 마지막 정착지였던 태국의 마약왕 '쿤사'의 진영에서 극적인 탈출에 성공하기까지 국내의 잡지, 언론,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을 비롯해 한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최근 도서출판 '서적포'에서 1·2권으로 출간된 「탈출」은 그러한 문씨의 고난스러운 행적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1941년 문씨가 세상 때 일제의 북만주 이주정책이 시작됐고 그와함께 문씨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흑룡강성 목단강으로 이주했다. 스무살 되던 해에는 중국 공산당의 사상 투쟁이 마을에까지 침투해 가족들은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혔고, 어머니는 자살했다. 막막함 밖에 없었던 그는 당시 경성으로 갔던 지식인 아버지를 찾아가 남한으로의 탈출을 생각했다. 그러나 이 생각마저 중국의 체제를 비판한 정치범으로 오인받아 체포됐다. 장장 15년 동안을 내몽고에서 죄수로 지내던 문씨는 모택동 사망 이후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 결혼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북경에서 천안문 사태가 발발하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던 그가 선동자로 오인돼 체포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미얀마에 머물면서 국내 기독교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하던 문씨는 전세계에서 헤로인의 70퍼센트를 공급한다는 마약 왕 쿤사의 진영까지 잠입하게 된다.

이처럼 「탈출」은 그의 삶에서 더이상 뻔 것도, 보탬 것도 없는, 한편의 다큐멘터리인 것이다.

문씨는 지금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국적 취득을 기다리면서 그가 UN으로부터 난민 판정을 받도록 서명운동을 벌여 신앙의 온정을 느끼게 했던 '미금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은 항시 그리던 고국땅을 밟고 사는 게 그렇게 좋을 수 없다.

“정말 좋지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이 땅의 나무도, 돌도, 사람도 그저 너무나 사랑스러워 입맞춤을 하고 싶을 정도지요.” 주변에는 문씨의 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우리 식구 모두 자신만만합니다. 항시 맨몸으로 보따리 하나만을 갖고 떠나는 삶이었지만 한국에 돌아올 때에는 불덩이 같은 애국심을 안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게 된 것만도 감격에 겨웁지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인정이 아주 대단해서 없던 힘이 다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태국과 미얀마에서 살던 당시는 그들 가족에게 있어 “광야생활”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록 찢고 풀은 흐르지 않지만 정신적인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이 “가나안 땅” 이었고, 문씨는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선 것이다.

—배은희 기자



우리시대 여러 세대와 유형의 결혼이야기 여성들 자신의 생생한 육성 충실히 전달

—「우리시대 결혼이야기」 낸 김효선씨

이 책 그 사람
대부분의 남녀들은 때가 되면 짝을 찾아 쌍을 맺는다. 이것을 제도적 용어로 결혼이라 부른다. “당신은 결혼을 하여 행복한가” 하고 물으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에 더 많이 손을 드는 쪽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다고 한다. 왜 그럴까.

여성신문사 편집부장으로 있는 김효선(34) 씨가 ‘결혼과 여성의 지위’라는 제목으로 여성신문에 1년간 연재했던 기사를 모아 책으로 펴낸 「우리시대 결혼이야기」에는 여러 유형의 결혼, 여러 세대의 결혼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누구나 보랏빛 환상을 가지고 진입하는 결혼의 이후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주면서 앞서의 질문에 손 못 드는 사람, 자신있게 손드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펼쳐보인다.

책에 나타나는 우리시대 결혼 모습은 몹시 다양하다. 대학은 물론 직장생활까지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있다가 결혼한 우리시대 ‘귀부인’은 자기방의 걸레질도 서럽다며 눈물흘리고, 처가의 애프터서비스는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만약 아내가 생색이라도 낼라치면 몹시 못마땅해하는 남편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전략만 잘 세우면 시집살이도 남는 장사”라는 영악한 ‘미시’가 있고, ‘빈 등지의 상실감’을 메울 길 없어 보석을 사모으고 부동산에 몰두하는 50대 주부가 있다.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하고 외양적으로는 진보를 한 것 같은데 결혼제도안의 각자의 삶은 그리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 그들의 육성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보았지요. 옛날 어머니세대들이 시집육을 하고 남편육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또다시 밥짓는 일을 반복하는 것과는 달리, 요즘 젊은 신세대 주부들은 자신의 토로가 비단 자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구조의 문제,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는 것을 돌아서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세대들이지요.” 그는 그들의 고민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본다고 말한다.

그는 ‘여성학’이 생소하던 시절 이를 ‘전공’으로 택해 대학원에서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여성의 문제’를 국내에서 이론으로 체계를 세워가며 배운 소수의 앞선집단에 속한 사람이다. “그때 여성이 처한 모든 불평등의 이유들을 이론으로 배웠지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자주 공허해지곤 했어요. 그래서 어찌하는 건가? 하는 물음을 말입니다. 당사자 여성들의 인식은 무지하다싶을 만큼 낮는데,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현실과 접목시키고 언제 해결을 다 하나 싶었지요.”

그래서 그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이론이란 이름의 지식은 다 버리자, 현실로 돌아가 문제를 찾고 현실 속에서 해결책을 찾자”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사회변화의 대세를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사랑법의 추세도 점점 낭만적인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필요성에 따라 ‘성’과 ‘사랑’과 ‘결혼’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결혼의 형식은 다양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윤리규범도 함께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혜옥 기자